

인사말씀

금요일 오후 공사 간 바쁘신 중에 삼청관광미술제 개막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과 이낙연 국회의원님, 김영중 종로구청장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님, 여봉무 종로구의회의장님, 참가화랑, 관광업소 대표자, 어려운 여건 하에도 참가해 주신 업소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코로나시대에 시원하게 조선시대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삼청동은 예로부터 산·물·사람이 맑다 하여 삼청이라 불려 왔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의 세자 시절에 삼청동 경치에 취해 10여 일을 그곳에 머물렀고 그에 대한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왕성의 북쪽 방면은 신선의 산에 막혀있는데 방초는 깔자리 같고 나무는 그늘지려 하누나.삼청동 깊은 경계엔 여름 햇살이 더디오고 천 겹을 돌아가는 시내는 푸른 숲을 뚫고 흐르네.성시 문의 먼지들은 날아서 어디로 갔는고, 골짜기 입구 거문고와 술잔 들고 가니 자리는 더욱 깊숙해지네. 푸른 들판과 평평한 샘물이 의당 백중세를 다투리니, 노니는 이들은 무릉도원을 다시 찾지 말게나 <국도 팔영(國都八詠).중 삼청 녹음(三清綠陰)을 읊은 것.

보고 계신 삼청관광안내지도를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많은 80여 개의 갤러리·박물관이 삼청로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삼청

동의 빠르게 변화하는 상업화로 높은 임대료 상승 때문에 화랑 숫자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공예 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견희 미술관이 삼청동에 결정되면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의 기대인 미술의 거리는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삼청미술제가 시작되고 삼청로 문화축제의 중점사업으로 역할을 해 오면서 미술의 거리로서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면서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삼청동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궁, 박물관, 문화유적 그리고 한옥 등의 전통문화와 갤러리, 패션, 카페 다양한 음식점 등의 현대적인 문화가 어우러진 삼청동 만의 독특함과 격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삼청관광미술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개의 참가 갤러리, 박물관에서 준비한 20여점의 조형작품과 삼청로만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음식점, 카페 등 40곳의 즐길거리가 한/영문으로 표기된 지도를 제작하고 삼청로 곳곳에 배치, 배포 하여 산책의 즐거움과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편리성과 유익성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삼청동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삼청미인으로 법인 승인을,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았

고 2020.12.24일 자로 도로계획선, 건축한계선이 대폭 조정되었고 일부 구역은 용도완화로 갤러리·미술관·박물관 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도슨트 행사를 통해 갤러리·미술관·박물관 전시를 안내 예정이며 9월부터는 역사문화재 힐링 행사로서 삼청동 관내에 역사 문화유적지를 발굴·조사하여 예상되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삼청관광미술제는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님과, 이낙연 종로 국회의원님의 열정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오후 시간을 할애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함께 참가해 주신 화랑 대표자, 관광업소 대표자, 행사에 참가해주신 업소대표자와 관광미술제를 도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